

가정계열 선택과목에 대한 고등학생의 요구 분석

한주* · 주수언** · 유난숙*** · 박미정**** · 백민경*****†

*강원대학교 가정교육과 조교수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가정교육과 조교수 ·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부교수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조교수 · *****전주대학교 가정교육과 조교수

Analysis of the Needs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in Home Economics Elective Courses

Han, Ju* · Ju, Sue Un** · Yu, Nan Sook*** · Park, Mi Jeong**** · Baek, Min Kyung*****†

*Assistant professor, Dept. Home Economics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at Gyeongju

***Associate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ssistant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Jeonju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igh school students' needs for home economics elective courses in line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the next home economics curriculum. To this end, 1,689 high school students across the country were analyzed for needs of home economics elective courses (eighteen elective courses and six sub-disciplines of home economics) and differences in the needs of home economics elective courses based on gender, grade levels, and completion of home economics science subject. The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Among the six sub-disciplines, the preference for 'dietary life' was the highest, and in terms of teaching types, experiment and practice class had significantly higher preference in 'dietary life' than other sub-disciplines. Girls showed higher preferences for home economics elective courses than boys, and the third grader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preferences only for the 'dietary life' sub-discipline than the first graders. High school students who are learning or have learned the home economics science subject showed higher preference for home economics elective courses in all the sub-disciplines than those who have not learned i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for the national curriculum development that further researches should be actively carried out to develop home economics career elective subjects.

Key words: 가정계열 선택과목(home economics elective courses), 가정과학(home economics science),
고교학점제(high school credit system), 고등학생 요구 분석(analysis of the needs of high school students),
한국 고등학생(korean high school student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변화들의 공통점을 꼽으라면 ‘다양성의 추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변화는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기는 인력에 의해 추동되기도 하지만 기존의 절대적 질서와 가치에 대한 부정, 즉 척력을 동력삼아 발전하기도 한다. 굳이 탈구조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거창한 표현을 빌려오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보편성이라는 근대적 가치가 획일화로 변질되어 개인의 요구와 선택을 제한해왔던 과거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교육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교육방식과 내용이 아닌, 학습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혹은 초개인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Kim, Min, & Jung, 2019).

그동안 우리나라의 중등학교 교육과정은 국가의 주도하에 개발·운영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권한을 시·도교육청, 학교, 그리고 개별 교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역과 학교,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선택과목 확대, 고교학점제 도입 추진 등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토대로 다양한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근거와 여건이 마련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MOE], 2015, 2021).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함으로써 각자 개별화된 진로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MOE, 2021).

가정교과는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아동 및 가족, 소비와 가정관리 등 생활과학 학문 전반에 걸쳐 연계된다. 그러나 현재 고등학교 일반교과 중 가정계열 과목은 일반선택과목인 ‘기술·가정’과 진로선택과목인 ‘가정과학’ 두 과목에 그치고 있다. 물론 고교학점제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선택과목 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핵심이 단순히 많은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 선택권만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술·가정’, ‘가정과학’ 두 과목 모두 생활과학 학문 분야를 포괄적으

로 다루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대학 및 산업구조와 부합하는 세부 분야별 과목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기 위한 첫 단계로 고등학생들의 선택과목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선택과목 집중을 통해 양질의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연구 동향을 분석한 Lee(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 관련 선행 연구들은 교육과정 편성 운영 실태 및 이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을 알아보는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60% 이상에 해당하고 있다. 이 외에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교육과정 개발에 관련된 연구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었다. 최근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고교학점제 관련 연구들 역시 제도의 정착을 위한 논의 및 학생의 선택과목 선택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Han, Kim, Park, & Lee, 2019; Kwon & Lim, 2020)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들이 제도와 현황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앞으로는 개별 선택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과거에도 가정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 및 인식을 조사한 연구(Han, 2018; Park & Choi, 2015)들이 몇 차례 이루어진 바 있으나, 가정계열 선택과목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로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최근 이루어진 2건의 연구는 가정계열 선택과목에 대한 심도 있는 후속 연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Kim과 Heo(2021)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차기 고등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방향과 선택과목 체제를 탐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로 가정과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서 기존과목을 분리/통합/조정하여 구성하는 방안, 새로운 과목을 개발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대학의 학과와 연계성을 갖는 새로운 과목으로 구성하는 방안의 3가지 체제를 제안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제시하였다. Yu, Baek, Ju, Han과 Park(2021)의 연구는 차기 교육과정을 대비하여 고등학교 가정교과(군) 선택과목을 구조화하기 위해 가정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가정교과 선택과목에 대한 전공 분야별 인식을 분석하고,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아동 및 가족생활’, ‘소비 및 가정관리’, ‘통합’이라는 6개 분야에서 총 18개의 가정계열 선택과목명과 과목별 개요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Yu 외(2021)의 연구 결과로 제시된 가정계열의 6개 분야 18개 선택과목을 중심으로 고등학생들의 가정계열 선택과목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현장의 가정과 교사들이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추후 가정계열 선택과목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계열 선택과목에 대한 고등학생의 요구는 어떠한가?

둘째, 성별, 학년, 가정과학 이수여부에 따라 가정계열 선택과목에 대한 요구에 차이가 있는가?

II. 선행연구 고찰

1. 선택 교육과정 관련 선행연구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는 주로 현장 중심의 연구로 교과목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학생들에게 피상적인 다과목 학습을 요구했던 기존의 교육과정을 개선한 7차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계발, 진로와 요구를 반영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그 흐름을 이어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에 따른 일반계 고등학교 운영실태(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Education, 2004; Song, 2003) 및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개선 방안 관련 연구(Paik, 2014; So, 2002) 등이 진행되었다.

고등학교에서 선택 교육과정의 시행은 7차 교육과정이 고등학교 2학년에 적용되는 2003년부터 이루어졌으며, 단위학교에서는 과목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개설과 원격교육을

통한 과목 이수 인정 및 학교 간 선택과목의 연대를 통하여 운영할 수 있었다. 이후 2013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교 전 과정을 선택 교육과정으로 바꾸고 학교자율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에 맞는 진로집중과정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즉 기초교과는 모든 학생이 반드시 이수하고 세분화된 선택과목은 수준별·분야별로 재구조화하여 실시하도록 변화되었지만 10년 이상 지속된 학생중심의 선택 교육과정은 일반고에서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Jang, 2017). 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을 기점으로 학생 중심의 선택 교육과정은 사회 및 개인적 필요성에 맞게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되면서, 고등학생의 계열 선택 및 선택과목 이수와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고등학생의 계열 선택 및 과학, 수학 선택과목 이수에 관한 의견 조사 연구(Jo, Choi, & Jo, 2012)에서는 계열 선택 이유 및 대학 진학 희망 분야를 선택할 때 교과의 흥미나 성적의 영향을 받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자신의 적성, 미래 직장 등을 주로 고려한다고 하였다. 또한 선택과목을 선정할 때 해당 과목에 대한 흥미를 가장 중시하였지만, 학교 사정 및 대입 제도에 따른 결정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여 학습자의 해당 과목에 대한 흥미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이는 능력 및 내신을 포함한 대입 제도가 결국 학생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즉, 학생의 적성에 따른 진로 결정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등학교 과학 선택 과목 운영에 대한 인식 조사(Lee & Shim, 2016)에 따르면, 고등학생이 원하는 과목 선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각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편의성에 의해 왜곡되어져 왔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국가 교육과정이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이론적 논리적 측면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나타내며, 재정적·행정적 여건과 단위학교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Paik과 Shim(2014)은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그 목적에 맞게 고등학생이 진로 및 적성에 부합하는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실행되고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해, 가정배경 특성, 개인학습자 특성, 학교특성 별로 진단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선택과목이 진로 및 적성과 관련되는 정보는 보통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생

의 내재적/외재적 학습동기, 대학전공계열, 부모의 교육적 지원 등이 유의미한 영향으로 나타나 학생의 진로 및 적성에 부합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및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2. 가정계열 선택 교육과정 관련 선행연구

선택 교육과정인 7차 교육과정 이후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고등학교 기술·가정과 선택과목 관련 연구는 Choi와 Jang(2000)의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가정과학’ 과목 선택 결정 요인 연구를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최근에는 국기수준의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정책 중 하나인 ‘고교학점제’의 도입으로 인한 학생 진로를 고려한 과목 선택권 확대 방안과 관련한 연구가 가정학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고교학점제란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는 학생들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과목을 수강하여 ‘일정 기준에 의거하여 이수를 인정’받았 그 결과 ‘해당 누적학점이 정해진 기준에 도달하였을 때 졸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의 학사 운영 체제를 의미한다 (Yoon, 2021). 현재 학년이나 학급 단위로 짜여 있는 시간표에 따라 과목을 이수하고, 집합 단위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방식과는 달리 학생의 과목 선택에 대한 자율성과 학교와 교사의 과목 개설에 대한 자율권이 부여된다는 점이 현행 제도와 뚜렷하게 구별된다. 즉, 입시·경쟁 중심의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 개개인이 가진 특성에 따라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시켜주는 성장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의 자율성 신장과 선택학습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고교 교육의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고등학교 가정과 선택 교육과정 편성 방안을 탐색한 Park(2017)은 가정계열의 교과 분화를 통해 가정과의 선택과목을 다양화·전문화 하여야 하며 학생, 학부모, 교사들로부터 사회적 요구를 이끌어냄을 강조하였다. 특히 학생에게 필요한 과목을 학회 차원에서 신설함으로써 차기 교육과정 편성 시 선택교과로

편성될 수 있는 사전 준비와 더불어 다양한 고등학교 유형을 대상으로 가정과 선택과목명에 대한 요구 분석을 제안하였다. 고교학점제 정책으로 인한 흐름의 영향으로 교육과정 편성 시 학생의 참여와 선택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Lee와 Paik(2019)은 고교학점제를 시범 운영하는 82개 연구학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과목 선택권 확대에 관한 인식과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 이유를 살펴본 결과, 대학 진학 희망 계열 및 자신의 적성 및 관심과의 관련성이 가장 우선 순위를 차지했고, 내신 성적 산출에 유리한 과목 및 쉽고 부담 없는 과목은 이보다 낮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 스스로 선택한 과목에 대한 수업 만족도가 학교가 지정해 준 과목에 대한 수업 만족도보다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과목 선택을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 고등학생들은 대학 학과 체험 활동 및 학교 밖과 연계된 진로지도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고교학점제 도입이 가까워짐에 따라 최근에 연구된 기술·가정과 교사의 학교교육과정 편성 참여와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식(Park et al., 2020) 연구결과, 교사들은 향후 학교교육과정 편성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높았으며,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의 진로 선택과 전공 분야의 전문내용 심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함으로써 기술·가정과 선택과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술·가정 계열의 진로선택과목을 보다 다양하게 개설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과 더불어 교과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고등학교에서 선택 가능성이 높은 선택과목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기를 강조했다. 이어서 Kwon과 Lim(2020)도 고등학교 기술·가정 선택과목 운영 실태 및 요구조사 결과 현재 고등학교에서 기술·가정과 선택과목 및 운영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기술·가정과 교사들은 기술·가정과 선택과목에 대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연구된 Park 외(2020)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술·가정 선택과목이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과목이 될 수 있도록 미래 사회에 필요한 내용을 개발하고 과목 구분을 세분화하여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제안한 선택과목으로 가정분야는 식품 영양, 인간발달, 부모교육, 패션, 생활과 건강, 생활 안전 등의 과목을 제안하였는데, 교사들은 학문적 구분보다는 좀 더 학생들이

에게 매력적인 과목명을 고민하기를 제안하였다.

한편 Kim(2020a, 2020b)은 미국 미네소타주와 오하이오주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가정과 선택과목 개발을 위한 미국 고등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사례를 연구하였는데,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위한 가정과 교육의 분야별 선택과목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학생활동 중심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 과정을 탈피하고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우리나라 고교학점제 대비를 위해 가정과 진로 선택과목 개발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는데, 가정과 진로선택과목에 관한 고등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해 수요자 중심의 진로 선택과목을 개발하고 특히, 진로 선택과목인 ‘가정과학’의 위계성과 내용 계열성을 고려하여 가정과 진로 선택과목 이수를 위한 기초과목으로써 새로운 일반 선택과목과 가정 계열 대학 진학을 위한 진로 선택과목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계열 선택과목에 대한 요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연구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의 고등학생으로, 시도별로 1개교 당 2-3학급을 선정하여 2021년 3월 한 달 동안 온라인 설문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Yu 외 (2021)의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6개 가정교과 분야의 18개 선택과목명과 각 과목 개요를 참고하여 가정교육 전공교수 5인의 타당도 검증을 통해 개발하였다.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orean Social science Data Center[KSDC])의 온라인 설문 시스템을 활용하여 ‘고등학생의 가정계열 진로 선택과목에 대한 요구조사’ 설문을 제작하고, 접속주소를 URL과 QR코드로 연구대상 학생들에게 배포하였다.

설문응답 학생 수는 총 1,689명으로 여학생과 남학생의 비율이 3:1이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2/3 정도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3학년, 2학년 순이었으며 학교 유형은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이 85% 정도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선호하는 과목으로는 체육(18.82%), 예술(16.78%)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과학(13.70%), 수학(13.60%)과 사회(12.80%), 국어(7.3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술·가정에 대한 과목 선호도는 3.90%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진로 선택과목인 가정과학은 배우고 있거나 배운 학생(31.60%)보다 배우지 않은 학생들(68.40%)이 많았다(Table 1).

2. 측정도구

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인적 정보(성별, 학년, 학교유형, 지역 등 4문항), 선호하는 과목(18과목의 선호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설문), 가정과학 과목 이수 여부를 알아보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나. 가정계열 선택과목 요구

(1) 가정계열 선택과목 분야별 선호하는 수업방식

본 연구에서 ‘가정계열’은 학문을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우리나라 생활과학 대학의 학문분야와 그 범위가 대체로 일치한다. 생활과학 대학에서 다루는 학문은 의식주, 소비, 아동 가족 등 인간의 삶의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합과학, 응용과학의 성격을 띤다. 세부 학문별로 그 성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가정계열 세부 분야인 의생활 분야, 식생활 분야, 주생활 분야, 소비자 및 가정경영 분야, 아동 및 가족생활 분야별로 어떤 수업 방식을 선호하는지 알아보았다. 희망수업 방식은 강의, 토의 및 토론, 실험, 실습, 과제연구, 기타(주관식 응답)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2) 가정계열 선택과목 선호도

Yu 외(2021)에서 구조화한 가정계열 선택과목 18개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즉, 자립적인 생활디자인, 의생활(의복과 패션, 패션디자인, 패션마케팅 및 머천다이징), 식생활(1인 기구의 식사와 조리, 식생활과 문화, 식품안전과 건강, 식품영양 실험탐구, 영양과 다이어트), 주생활(주거 공간 디자인, 주거사회 문화, 미래주거생활 탐구), 소비자 가정경영(삶의 경제학, 소비문화와 트렌드), 아동 가족생활(가족복지와 행복, 건강한 커플관계, 발달 심리, 예비 부모교육) 등 총 18과목의 선호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는 질문을 만들어 조사하였다.

(3) 가정계열 선택과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지원내용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가정계열 선택과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지원내용은 ‘고등학교 선택과목에 대한 안내’, ‘선택과목과 관련된 대학 및 학과 안내’, ‘생활과학대학에서 운영하는 학과 체험활동’, ‘가정계

열 교과(군) 관련 지역사회 체험 프로그램’, ‘생활과학 대학생들의 진로·진학 멘토링’, ‘부모님 대상 진로 진학 특강’, ‘기타(주관식 응답)’의 7개 항목으로 구성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1~3순위까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성별, 학년별, 가정과학 이수 여부에 따른 가정계열 선택과목의 선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ANOVA, 사후검증(LSD)을 실시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689)

구분	내용	n	%	구분	내용	n	%
성별	남	423	25.00	지역	서울특별시	86	5.10
	여	1,266	75.00		부산광역시	36	2.10
학년	1	1,100	65.10		대구광역시	64	3.80
	2	177	10.50		인천광역시	31	1.80
	3	412	24.40		광주광역시	158	9.40
학교유형	일반계 고등학교	1434	84.90		대전광역시	71	4.20
	특성화 고등학교	100	5.90		울산광역시	60	3.60
	자율형(사립, 공립) 고등학교	155	9.20		경기도	186	11.00
선호하는 과목	국어	123	7.30		강원도	129	7.60
	수학	229	13.60		충청북도	97	5.70
	영어	116	6.90		충청남도	98	5.80
	사회(역사, 도덕포함)	217	12.80		전라북도	45	2.70
	과학	231	13.70		전라남도	160	9.50
	체육	317	18.82		경상북도	135	8.00
	예술	284	16.78		경상남도	95	5.60
	기술·가정	66	3.90		제주특별자치도	132	7.80
	제2외국어	50	3.00	세종특별자치시	106	6.30	
	한문	5	0.30	가정과학	배움	534	31.60
교양 (교육학, 심리학, 논술 등)	51	3.00	이수여부	배우지 않음	1155	68.40	

IV. 연구결과

본 연구 목적과 내용에 따라 한국 고등학생의 가정계열 선택과목의 요구를 분석하고, 이를 성별, 학년, 가정과학 이수 여부에 따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국 고등학생의 가정계열 선택과목 요구 분석

가. 고등학생들이 선호하는 가정계열 진로선택과목 분야와 수업 방식

고등학생들이 가정계열 과목을 선택할 때 선호하는 분야에 대한 중복 응답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식생활 분야(841명, 49.80%)를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의생활 분야(637명, 37.72%)를 선택하였다. 그 외에 아동 및 가족생활 분야(578명, 34.18%), 주생활 분야(524명, 31.00%), 소비자 및 가정경영 분야(522명, 30.90%)를 고르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가정계열 분야별로 선호하는 수업 방식에 대해 중복 응답한 결과는 <Table 3>과 <Figur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분야별 특성이 잘 드러난다. 의생활 분야에서는 수업 방식으로 실습

(36.70%), 강의(32.60%), 실험(13.00%), 토의/토론(8.90%), 과제 연구(8.00%)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 분야에서는 실습(50.90%), 강의(22.60%), 실험(15.10%), 토의/토론(6.00%), 과제연구(4.60%)로 나타나 실습에 대한 선호가 두드

Table 2. Home Economics sub-discipline preferred by high school students as elective courses (N=1,689)

구분	내용	n	%
	의생활 분야	637	20.30 (37.72)
	식생활 분야	841	26.80 (49.80)
가정계열 진로 선택과목 선호 분야 (중복응답)	주생활 분야	524	16.70 (31.00)
	소비자 및 가정경영 분야	522	16.60 (30.90)
	아동 및 가족생활 분야	578	18.40 (34.18)
	기타	34	1.20 (2.00)
	합계	3,136	100.00 (185.60)

Table 3. Teaching methods of Home Economics sub-discipline preferred by high school students

(N=1,689)

구분		희망 수업 방식						합계
		강의	토의/토론	실험	실습	과제연구	기타	
의생활 분야	n (%)	807 (32.60)	220 (8.90)	322 (13.00)	909 (36.70)	197 (8.00)	21 (0.80)	2,476 (100.00)
	케이스 중 %	47.8	13.0	19.1	53.8	11.7	1.2	
식생활 분야	n (%)	557 (22.60)	148 (6.00)	372 (15.10)	1253 (50.90)	112 (4.60)	20 (0.80)	2,462 (100.00)
	케이스 중 %	33.0	8.8	22.0	74.2	6.6	1.2	
주생활 분야	n (%)	934 (38.50)	272 (11.20)	269 (11.10)	680 (28.00)	247 (10.20)	25 (1.00)	2,427 (100.00)
	케이스 중 %	55.3	16.1	15.9	40.3	14.6	1.5	
소비자 및 가정경영 분야	n (%)	988 (40.89)	401 (16.6)	220 (9.10)	560 (23.19)	223 (9.20)	26 (1.00)	2,418 (100.00)
	케이스 중 %	58.5	23.7	13.0	33.2	13.2	1.5	
아동 및 가족생활 분야	n (%)	1030 (42.20)	389 (15.90)	204 (8.40)	556 (22.80)	239 (9.80)	24 (0.90)	2,442 (100.00)
	케이스 중 %	61.0	23.0	12.1	32.9	14.2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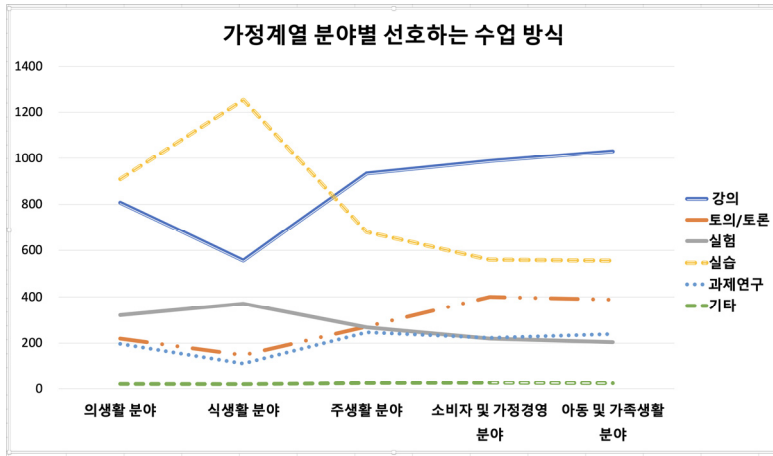


Figure 1. Teaching methods of Home Economics sub-discipline preferred by high school students

러지게 높았고, 실험 역시 가정계열 분야 중에서 수업 방식으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생활 분야에서 선호하는 수업 방식은 강의(38.50%), 실습(28.00%), 토의/토론(11.20%), 실험(11.10%), 과제연구(10.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및 가정경영 분야에서는 강의(40.89%), 실습(23.21%), 토의/토론(16.60%), 과제연구(9.20%), 실험(9.10%)의 순으로 수업 방식을 선호하였다. 아동 및 가족생활 분야에서는 강의(42.20%), 실습(22.80%), 토의/토론(15.90%), 과제연구(9.80%), 실험(8.40%)의 순으로 수업 방식을 선호하여 소비자 및 가정경영과 같은 순서의 선호도를 보였다.

가정계열 분야별로 선호하는 수업 방식을 살펴보면, 강의와 실습이 분야별로 1, 2위로 나타났다. 강의를 가장 선호하는 분야는 아동 및 가족생활, 소비자 및 가정경영, 주생활 분야이고, 실습을 가장 선호하는 분야는 식생활과 의생활 분야이다. 특히 식생활 분야에서의 수업 방식으로 실습을 선택한 학생이 1,253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4.2%에 해당한다. 또한 강의를 가장 선호한 분야(아동 및 가족생활 분야, 소비자 및 가정경영 분야, 주생활 분야)에서도 두 번째로 선호하는 수업 방식이 실습인 것이 특징적이다. 실험은 식생활 > 의생활 > 주생활 분야에서 수업 방식으로 선호하였고, 토의/토론에 대한 선호는 소비자 및 가정경영 > 아동 및 가족생활 > 주생활 분야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제연구는 주생활 > 아동 및 가족생활 > 소비자 및 가정경영 분야의 수업 방식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u 외(2021)가 개발한 가정계열 진로 선택과목명과 과목 개요를 제시하고, 고등학생들의 선호도를 5점 Likert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18개의 가정계열 진로 선택

Table 4. Home Economics elective course preference (N=1,689)

과목명		M	SD
가정계열 통합	자립적인 생활디자인 ¹⁾	3.32	1.01
의생활	의복과 패션	3.48	1.07
	패션디자인	3.58	1.09
	패션마케팅 및 머천다이징	3.22	1.09
	식생활	1인 가구의 식사와 조리	3.74
식생활	식생활과 문화	3.43	1.02
	식품안전과 건강	3.38	1.01
	식품영양 실험탐구	3.29	1.04
	영양과 다이어트	3.53	1.03
	주생활	주거 공간 디자인	3.67
주생활	주거사회 문화	3.21	1.00
	미래주거생활 탐구	3.28	1.04
	소비자/가정경영	삶의 경제학	3.25
소비자/가정경영	소비문화와 트렌드	3.46	1.06
	아동/가족생활	가족복지와 행복	3.41
아동/가족생활	건강한 커플관계	3.43	1.10
	발달심리	3.48	1.08
	예비 부모교육	3.41	1.14

과목에 대한 선호도 분석 결과, 과목별 평균은 3.21점(주거사회 문화)에서 평균 3.74점(1인 가구의 식사와 조리)사이에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전체 평균은 3.42로 나타났다. 그 중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1인 가구의 식사와 조리(M=3.74, SD=1.02)', '주거 공간 디자인(M=3.67, SD=1.05)', '패션 디자인(M=3.58, SD=1.09)', '영양과 다이어트(M=3.53, SD=1.03)'였다. 반면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주거사회 문화(M=3.21, SD=1.00)', '패션마케팅 및 머천다이징(M=3.22, SD=1.09)', '삶의 경제학(M=3.25, SD=1.12)'이다. 즉 내용 영역별로 다양한 과목명이 제시되었으나 학생들은 보통 수준의 선호도를 보였다.

가정계열 분야별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한 진로 선택과목명을 살펴보면, 의생활 분야는 '패션 디자인', 식생활 분야는 '1인 가구의 식사와 조리'와 '영양과 다이어트', 주생활 분야는 '주거 공간 디자인', 소비자/가정경영 분야는 '소비문화와 트렌드', 아동/가족생활 분야는 '발달 심리'이다. 이를 통해 고등학생들이 '디자인', '1인 가구', '조리', '다이어트', '트렌드', '심리' 등의 단어가 포함된 과목명을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은 가정계열 진로 선택영역에서 식생활 영역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선호 교과목 1위는 '1인 가구의 식사와 조리(M=3.74)' 과목이었다. 이는 최근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자신에게도 머지않은 미래에 도래할 일이라 여겨 우선적으로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교과목이라는 점과 자신의 삶과 연계된 내용으로 구성된 교과목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고등학생들이 과목 선택 시 고려하는 점과 선택에 필요한 지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과목을 선택할 때, 주로 진학이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와 같이 고등학생들은 과목 선택 시 고려하는 점을 대학 진학 희망 계열과 관련된 과목(42.09%), 적성 및 자신의 관심과 관련된 과목(29.41%), 진로 및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과목(10.10%)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쉽고 부담 없는 과목(9.20%), 내신 성적 산출에 유리한 과목(7.60%), 좋아하는 선생님이 담당하

Table 5. What high school students consider when deciding on elective courses

(N=1,689)

구분	내용	n	%
선택과목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점	대학 진학 희망 계열과 관련된 과목	711	42.09
	적성 및 관심과 관련된 과목	497	29.41
	진로 및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과목	170	10.10
	쉽고 부담 없는 과목	156	9.20
	내신 성적 산출에 유리한 과목	129	7.60
	좋아하는 선생님이 담당하는 과목	12	0.69
	기타	14	0.81

는 과목(0.69%)에 대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1위에서 3위에 선정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학교 현장에서는 고등학교 선택과목에 대한 안내 및 교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함께 이후 대학진학과의 연계를 담은 학교교육 과정 설명회 등을 통한 안내가 필요하며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적극적 동참이 요구된다.

한편, 고등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할 때 필요한 자원에 대한 응답결과는 <Table 6>과 같다. 고등학생들은 가정계열 과목을 선택하는데 있어 1순위로 고등학교 선택과목 내용에 대한 안내(31.60%), 2순위로는 선택과목과 관련된 대학 및 학과 안내(32.50%), 3순위로 생활과학대학에서 운영하는 학과 체험활동(27.61%)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1·2·3 순위의 지원 내용을 종합해보면, 고등학생들은 가정계열 과목 선택을 위해 고등학교 선택과목 내용에 대한 안내(63.89%)와 선택과목과 관련된 대학 및 학과 안내(77.00%)를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외에 생활과학대학에서 운영하는 학과 체험활동(63.81%)과 가정계열 교과(군) 관련 지역사회 체험 프로그램(46.30%), 생활과학 대학생들의 진로·진학 멘토링(38.80%)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Yu 외(2021)에 따르면 '자립적인 생활디자인' 과목은 의, 식, 주, 소비생활 등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문제를 자립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고,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여 개성 있고 지속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계열 간 통합을 시도한 과목이다.

Table 6. Priorities of support to help high school students decide on their Home Economics electives

(N=1,689)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	
	n	%	n	%	n	%	n	%
고등학교 선택과목 내용에 대한 안내	534	31.60	311	18.40	235	13.89	1,080	63.89
선택과목과 관련된 대학 및 학과 안내	487	28.80	549	32.50	266	15.70	1,302	77.00
생활과학대학에서 운영하는 학과 체험활동	219	13.00	392	23.10	467	27.61	1,078	63.81
가정계열 교과(군) 관련 지역사회 체험 프로그램	317	18.78	182	10.80	282	16.70	781	46.30
생활과학 대학생들의 진로·진학 멘토링	111	6.62	201	11.90	343	20.30	655	38.80
부모님 대상 진로 진학 특강	15	0.90	43	2.50	73	4.30	131	7.70
기타	6	0.40	11	0.70	23	1.40	40	2.50

2. 성별, 학년별, 가정과학 이수 여부에 따른 가정계열 선택과목의 선호 분석

응답한 고등학생의 성별, 학생별, 가정과학 이수 여부에 따른 가정계열 선택과목에 대한 요구(선호)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가정계열 선택과목 18개에 대한 선호도가 모두 높았다. 특히 가정계열 통합과목인 ‘자립적인 생활디자인’, 의생활 분야의 ‘의복과 패션’, ‘패션디자인’, ‘패션마케팅 및 머천다이징’은 $p<0.001$ 수준에서 여학생의 선호가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그 외에 여학생의 선호가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가정계열 선택과목은 식생활 분야의 ‘1인가구의 식사와 조리’($p<0.05$)와 ‘영양과 다이어트’($p<0.01$), 주생활 분야의 ‘주거 공간 디자인’($p<0.01$), 소비자/가정경영 분야의 ‘소비문화와 트렌드’($p<0.01$), 아동/가족생활 분야의 ‘가족복지와 행복’과 ‘발달심리’($p<0.001$), ‘예비 부모교육’($p<0.01$), ‘건강한 커피관계’($p<0.05$)이다.

가정계열 선택과목에 대한 선호에서 학년별로는 식생활 분야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다. ‘식생활과 문화’($p<0.05$), ‘식품안전과 건강’($p<0.05$), ‘식품영양 실험탐구’($p<0.01$) 과목에서 LSD 검증 결과 3학년이 1학년보다 과목에 대한 선호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가정과학을 배우고 있거나 배운 학생들은 가정과학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가정계열 선택과목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식생활과 문화’와 ‘주거 사회 문화’는 $p<0.001$ 수준에서, ‘식품안전과 건강’, ‘식품영양 실험탐구’와 ‘미래주거생활탐구’는 $p<0.01$ 수준에서, ‘자립적인 생활디자인’, ‘패션마케팅 및 머천다이징’, ‘영양과 다이어트’와 ‘소비문화와 트렌드’는 $p<0.05$ 수준에서 가정과학을 배우고 있거나 배운 학생들이 배우지 않은 학생들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높은 선호를 나타냈다.

가정계열 선택과목에 대한 선호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Table 8>과 같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과목에 대한 선호가 전체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고, 의생활 분야, 주생활 분야, 소비자/가정경영 분야, 아동/가족생활 분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가정과학을 배우고 있거나 배운 학생들이 가정과학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전체 분야의 선호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식생활 분야와 주생활 분야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 학년별로는 1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서 식생활 분야의 평균만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Differences in needs for Home Economics elective courses according to gender, grade, and Home Economics elective course completion of high school students

구분	내용	자립적인 생활디자인		의복과 패션		패션마케팅 및 머친디자인		1인 기구의 식사와 조리		식생활과 문화		식품안전과 건강		식품영양 실험탐구		영양과 다이어트		
		M (SD)	t	M (SD)	t	M (SD)	t	M (SD)	t	M (SD)	t	M (SD)	t	M (SD)	t	M (SD)	t	
성별	남	423	3.01	-6.83***	3.23	-5.08***	3.01	-5.04***	3.23	-2.40*	3.29	0.09	3.01	-0.27	3.23	0.16	3.29	-3.19**
	여	1,266	3.43	(1.15)	3.56	3.68	3.43	3.43	3.56	3.68	3.68	3.68	3.43	3.56	3.56	3.68	3.68	(1.23)
학년	1	1,100	3.31	0.17	3.50	0.76	3.60	0.40	3.74	0.06	3.39 ^a	3.28*	3.32 ^a	4.39*	3.23 ^a	5.64**	3.50	2.34
	2	177	3.32	(0.97)	3.46	(1.04)	3.58	(1.08)	3.24	(1.02)	3.43	(1.02)	3.51 ^b	(0.98)	3.39	(1.01)	3.66	(1.02)
	3	412	3.35	(1.00)	3.42	(1.09)	3.54	(1.11)	3.31 ^b	(1.10)	3.75	(1.02)	3.46 ^b	(1.02)	3.41 ^b	(1.05)	3.58	(1.03)
가정	배움	534	3.40	2.03*	3.48	0.09	3.62	1.05	3.32	2.59*	3.79	1.23	3.49	3.29**	3.41	3.18**	3.61	2.12*
	과학	(1.02)	(1.05)	(1.07)	(1.03)	(1.08)	(1.07)	(1.05)	(0.95)	(0.92)	(0.94)	(0.99)	(0.94)	(0.99)	(0.99)	(0.97)	(0.97)	(0.97)
	이수	1,155	3.29	(1.00)	3.48	(1.08)	3.56	(1.12)	3.17	(1.10)	3.36	(1.06)	3.32	(1.03)	3.24	(1.05)	3.50	(1.05)
예비	부모교육	(0.93)	(1.09)	(1.13)	(1.13)	(1.13)	(1.13)	(1.13)	(1.05)	(1.05)	(1.06)	(1.06)	(1.05)	(1.05)	(1.09)	(1.02)	(1.04)	(1.04)
	발달심리	3.23	0.16	3.23	0.16	3.23	0.16	3.23	0.16	3.23	0.16	3.23	0.16	3.23	0.16	3.23	0.16	3.23
	건강한 커피관계	3.01	-0.27	3.01	-0.27	3.01	-0.27	3.01	-0.27	3.01	-0.27	3.01	-0.27	3.01	-0.27	3.01	-0.27	3.01
성별	남	423	3.01	-3.46**	3.23	-1.72	3.29	-0.50	3.01	-1.19	3.29	-4.73***	3.01	-2.47*	3.23	-6.14***	3.29	-2.84**
	여	1,266	3.43	(1.15)	3.56	(1.19)	3.68	(1.23)	3.56	(1.15)	3.68	(1.23)	3.43	(1.15)	3.56	(1.19)	3.68	(1.23)
학년	1	1,100	3.67	0.09	3.16 ^a	3.98*	3.22 ^a	5.01**	3.43	0.86	3.40	0.40	3.43	0.23	3.46	0.53	3.38	1.23
	2	177	3.69	(1.10)	3.29	(0.97)	3.40	(1.04)	3.31	(1.10)	3.47	(1.05)	3.38	(1.07)	3.55	(1.07)	3.44	(1.18)
	3	412	3.66	(1.07)	3.31 ^b	(1.04)	3.39 ^b	(1.09)	3.26	(1.13)	3.42	(1.07)	3.45	(1.15)	3.48	(1.11)	3.48	(1.17)
가정	배움	534	3.70	0.90	3.54	3.55***	3.40	3.07**	3.55	2.35*	3.47	1.55	3.48	1.12	3.54	1.68	3.46	1.29
	과학	(1.01)	(0.94)	(0.94)	(1.00)	(1.08)	(1.00)	(1.08)	(1.00)	(0.98)	(0.98)	(1.07)	(1.07)	(1.01)	(1.01)	(1.10)	(1.10)	(1.10)
	이수	1,155	3.65	(1.07)	3.15	(1.02)	3.23	(1.06)	3.42	(1.08)	3.38	(1.06)	3.41	(1.12)	3.45	(1.11)	3.39	(1.16)
예비	부모교육	(0.93)	(1.09)	(1.13)	(1.13)	(1.13)	(1.13)	(1.13)	(1.05)	(1.05)	(1.06)	(1.06)	(1.05)	(1.05)	(1.09)	(1.02)	(1.04)	(1.04)
	발달심리	3.23	0.16	3.23	0.16	3.23	0.16	3.23	0.16	3.23	0.16	3.23	0.16	3.23	0.16	3.23	0.16	3.23
	건강한 커피관계	3.01	-0.27	3.01	-0.27	3.01	-0.27	3.01	-0.27	3.01	-0.27	3.01	-0.27	3.01	-0.27	3.01	-0.27	3.01

* p < .05, ** p < .01, *** p < .001. (a, b는 LSD의 사후검증 결과 구분임.)

Table 8. Differences in needs for Home Economics sub-disciplines according to gender, grade, and Home Economics elective course completion of high school students (N=1,689)

구분	내용 (n)	의생활 분야		식생활 분야		주생활 분야		소피자 및 가정경영 분야		이동 및 가족생활 분야	
		M(SD)	t(F)	M(SD)	t(F)	M(SD)	t(F)	M(SD)	t(F)	M(SD)	t(F)
성별	남 (423)	3.17 (1.11)	-5.73***	3.42 (0.99)	-1.31	3.30 (1.04)	-2.13*	3.26 (1.09)	-2.16*	3.24 (1.03)	-4.58***
	여 (1266)	3.51 (0.90)		3.49 (0.79)		3.42 (0.82)		3.39 (0.94)		3.50 (0.86)	
학년	1 (1100)	3.43 (0.94)	(0.00)	3.44 ^a (0.81)	(3.45)*	3.35 ^a (0.85)	(2.63)	3.34 (0.96)	(0.57)	3.42 (0.88)	(0.39)
	2 (177)	3.43 (0.98)		3.55 (0.86)		3.46 (0.89)		3.41 (0.97)		3.46 (0.93)	
	3 (412)	3.42 (1.04)		3.55 ^b (0.90)		3.45 ^b (0.95)		3.38 (1.04)		3.46 (0.98)	
가정 과학 이수 여부	배움 (534)	3.47 (0.94)	1.39	3.58 (0.78)	3.38**	3.48 (0.85)	2.90**	3.41 (0.93)	1.50	3.49 (0.86)	1.66
	배우지 않음 (1155)	3.40 (0.98)		3.43 (0.86)		3.34 (0.89)		3.33 (1.00)		3.41 (0.93)	

* p < .05, ** p < .01, *** p < .001. a, b는 LSD의 사후검증 결과 구분임.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가정계열 선택과목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1,689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한국 고등학생의 가정계열 선택과목에 대한 요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 고등학생이 선호하는 가정계열 선택과목 분야는 식생활 분야와 의생활 분야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아동 및 가족생활 분야, 주생활 분야와 소비자 및 가정경영 분야가 순으로 나타났다. 각 분야별로 선호하는 수업 방식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은 식생활 분야로, 전체학생의 75% 정도가 실습수업을 선호하고 있었고 실험 수업에 대한 선호도 다른 분야에 비해 높았다. 이에 따라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의법과 토의/토론 수업에 대한 선호가 낮았다. 식생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개 분야에는 강의식 수업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체로 실습, 토의/토론, 실험과 과제연구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u 외(2021)가 개발한 가정계열 진로 선택과목 18개의 과목명과 과목 개요에 대한 선호는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가장 높은 선호를 보인 과목은 ‘1인 가구의 식사와 조리’, ‘주거 공간 디자인’, ‘패션 디자인’, ‘영양과 다이어트’ 등 이었다. 고등학생들은 가정계열 과목 선택을 위해 대다수(60% 이상) 고등학교 선택과목 내용에 대한 안내를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를 위해 가정교육공동체가 토크콘서트와 같은 형식으로 홍보영상을 만들어 SNS에 올리거나 홍보용 리플렛을 만들어 전국 가정과교사연구회 또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배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면 좋겠다.

두 번째 연구 문제인 성별, 학년, 가정과학 이수여부에 따른 선택과목 선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가정계열 선택과목 18개에 대한 선호도가 모두 높았다. 여학생의 경우 특히 가정계열 통합과목인 ‘자립적인 생활디자인’, 의생활 분야의 ‘의복과 패션’, ‘패션디자인’, ‘패션마케팅 및 머천다이징’ 등의 과목 선호도가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학년별로는 식생활 분야에서만 LSD 사후 검증 결과 3학년이 1학년보다 과목에 대한 선호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분야별 가정계열 선택과목에 대한 선호를 분석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과목에 대한 선호가 전체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고, 의생활 분야, 주생활 분야, 소비자/가정경영 분야, 아동/가족생활 분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가정과학을 배우고 있거나 배운 학생들이 가정과학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전체 분야의 선호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식생활 분야와 주생활 분야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가정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새로운 선택과목명과 과목 개요를 제시한 Yu 외(2021)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설문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가정계열 선택교과목에 대한 수요자의 선호 교과목(교과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신설교과목을 준비하여야 하는지, 가정계열 선택과목에 대한 안내 자료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연계 프로그램에는 어떤 활동 등이 선택에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한 전략과 방법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 결과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인 교과목을 진로 선택과목으로 개발하여 편성하기 위해 학생 요구에 부응하는 진로 선택 과목 개발과 선택과목 선정에 대한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과목을 개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직무연수를 열어 가정과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가정계열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식품안전과 건강관련 인정도서를 개발하고 가정과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운영한 사례(Park, 2021)는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가정계열 선택과목 개발과 개설을 위한 다양한 측면의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양적으로 많이 축적되어, 차기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교과목 개설을 위한 실증적이고 논리적 근거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Choi, J. H., & Jang, Y. O. (2000). A study of factors affecting on high school students' choice of the science of home-economics course in the 7th national curriculum. *Journal*

-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2(3), 157-170.
- Han, J., Kim, S., Park, B., & Lee, K. (2019). *Case study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research school: Focusing on high schools located at small town in Kangwon province(CRC 2019-2-4)*. Chungbuk: Author.
- Jang, B. S. (2017). Factors affecting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ion in the elective-centered curriculum.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5(4), 303-324.
- Jo, G. H., Choi, J. S., & Jo, H. S. (2012). High school students opinions on choosing their academic track and elective courses for science and mathematics.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3), 839-857. doi: 10.24231/rici.2012.16.3.839.
- Kim, N. E., & Heo, Y. S. (2021). Exploring the direction of revision home economics curriculum and the selective subject system for the introduc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7), 621-637. doi:10.22251/jlcci.2021.21.7.621
- Kim, S. B. (2020a). A case study on high school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curriculum in minnesota, USA for the development of high school home economics electives.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9(1), 35-64. doi:10.22251/jlcci.2021.21.7.621
- Kim, S. B. (2020b). Examining the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curriculum in the unites states for developing the home economics elective courses for south korean high schools: A case study of the state of ohio.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2(4), 31-51. doi:10.19031/jkheea.2020.12.32.4.31
- Kim, S. C., Min, I. H., & Jung, M. R. (2019). *What is a high school credit system?*. Seoul: Mamedream.
- Kwon, Y. J., & Lim, Y. J. (2020). Elective course status and need related to high school technology & home economic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2(2), 179-192.
- Lee, G. S. (2020). Proposal of selective curriculum for general high schools through textile and clothing specialized curriculum and extra-school subjects. *Proceedings of the 2020 Winter Korea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Conference* (pp. 328-336). Seoul: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 Lee, J. Y. (2018).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related to elective-centered curriculum in general high school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14), 399-419. doi:10.22251/jlcci.2018.18.399
- Lee, M. J., & Shim, J. H. (2016). The perception of students and teachers on the management of high school science elective curriculum.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55(4), 537-549.
- Lee, S. E., & Paik, S. H. (2019). Students' perception of and needs for selecting electives in research schools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7(3), 79-105.
- Ministry of Education. (2015). *A practical arts(technology and home economics)/information curriculum*. (Notification No. 2015-74). Sejong: Author.
- Ministry of Education. (2021).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2021. 2. 16)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plan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Sejong: Author.
- Paik, S. H., & Shim, W. J. (2014). How relevant are high school students' curricular choices to their aptitudes and career interests? *Journal of Korean Education*, 41(2), 57-79.
- Park, M. J. (2017). Exploration on the organization of high school home economics selective curriculum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5(5), 539-553. doi:10.6115/fer.2017.039
- Park, M. J. (2021). The effect of the 'food safety and health' curriculum in the home economics curriculum in high School. *Proceedings of the 2021 Spring Korea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Conference* (pp. 177-186). Seoul: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 Park, M. J., Lim, Y. J., Kwon, Y. J., & Lee, G. J. (2020).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teachers' perception of participation in school curriculum organization and high school credit system.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2(1), 15-34. doi: 10.19031/jkheea.2020.03.32.1.15
- Park, M. S., & Choi, K. S. (2015). Middle school students' achievement perceptions regarding to objective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 Education Association*, 27(3), 35-46.
-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Education. (2004). *A study on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of selective curriculum*. Seoul: Author.
- Sim, J. H., Park, H. J., & Lee, J. K. (2004).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s on science elective of the 2009 revised curriculum.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39(2), 133-150.
- So, K. H. (2002). A study of "the student's selective right" in the selective-centered national curriculum.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0(4), 87-106.
- Song, I. L. (2003). *An analysis of the present state of high school selective curriculum*.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dong University, Gyeong buk, Korea.
- Yoon, J. H. (2021). *A study on the policy formation and change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 Based on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Yu, N. S., Baek, M. K., Ju, S. E., Han, J., & Park, M. J. (2021). Structuralization of elective courses in high school home economics(subject group) in preparation for the next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Home Education Association*, 33(1), 129-149.

<국문요약>

본 연구는 고교학점제 도입 및 차기 가정과 교육과정 개발에 발맞추어 고등학생들의 가정계열 선택과목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 1,689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정계열 선택과목에 대한 요구와 성별, 학년, 가정과학 이수여부에 따른 가정계열 선택과목(각 과목별, 분야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정 계열 중 식생활 분야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으며, 선호하는 수업 방식에 있어서도 식생활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실험과 실습 수업에 대한 요구가 월등히 높았다. 성별 선호도의 차이에서는 가정계열 전체 분야에 걸쳐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선호를 보였으며, 학년별로는 식생활 분야에서만 3학년이 1학년보다 과목에 대한 선호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정과학을 배우고 있거나 배운 학생들이 가정과학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모든 분야에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차기 교육과정에서 가정계열 진로 선택과목 개발을 위한 심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논문접수일자: 2021년 6월 5일, 논문심사일자: 2021년 6월 21일, 게재확정일자: 2021년 7월 3일